

도서관 이용안내

위치 영양군 영양읍 팔수로 538번지
문의 054-683-2829 팩스 054-683-1718

이용시간	구 분	이용시간
	일반자료실 · 아동자료실 · 디지털자료실	화 ~ 일요일 09:00 ~ 18:00
	열람실	화 ~ 일요일 08:00 ~ 22: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단,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일요일 휴관)	

● 대출 규정

- 대출자료 : 도서 및 과월호잡지 1인 5권 이내, DVD 1인 1점
- 대출기간 : 도서 및 과월호잡지 14일, DVD 7일
- 참고사항 : 가족회원의 경우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도서 대출 가능
예) 3인 가족: 3 x 5 = 15권
- 유의사항 : 자료 분실 및 훼손 시 동일 자료로 변상

● 회원가입안내

- 가입대상 : 경상북도 거주자 및 영양군 소재 직장 및 학교에 소속된 자
- 회원가입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 가입 후, 자료실에서 회원증 즉시 발급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http://www.youth.go.kr/youth>)

- 신청방법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사이트 회원가입 후 신청
- 활동시간 : 학기 중 토, 일 13:00 ~ 17:00
방학 중 매일 13:00 ~ 17:00 (단, 도서관 휴관일 제외)
- 참고사항 : 봉사활동 확인서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 가능

편집·발행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 발행일 2017. 12. 2.
홈페이지 주소 <http://www.gbllib.kr/yy/>

● 찾아오시는 길



고비

2017 제7호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 소식지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여기는
영양도서관입니다.

고비란 간철, 편지 같은 것을 꽃아 두는
물건, 우리 도서관은 소식지 '고비'를 통해
앞으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추억
을 하나하나 엮어 갈생각입니다.

| Contents |

- 02 이용자와 함께하는 책 이야기
- 03 책으로의 산책
- 04 도서관 행사 마당
- 06 평생교육 마당
- 07 사서 추천도서
- 07 Smart한 도서관
- 08 도서관 이용안내

경상북도립
영양공공도서관
Yeongyang Public Library

거인의 정원

이 정 민 (늘봄어린이독서회원 영양초 3학년)



「거인의 정원」은 「행복한 왕자」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가 쓴 작품입니다. 욕심 많은 거인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인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졌지만 아이들이 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정원에 들어오면 큰 벌을 받게 하겠음.’ 이라고 써 붙입니다. 그러자 거인의 정원에는 봄이 오지 않고 겨울만 계속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인의 정원에 봄이 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아이들이 상상하며 결말을 바꿔 쓴 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풍과 눈과 서리와 우박이 7년 동안 여행을 가서 7년 동안 봄이 찾아왔어요, 7년 후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겨울이 계속 되자 거인은 감기에 걸려서 아팠어요,

북풍, 눈, 서리, 우박은 거인을 안쓰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인의 정원에 봄을 내려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정원에 들어왔어요, 거인은 또 버럭 화를 냈고, 아이를 쫓아냈어요, 하느님이 거인에게 말했어요,

“거인아, 아이들을 정원에 들어와서 놀게 해 주어라, 안 그러면 다시 영원한 겨울을 내릴 것이다,”

거인은 담장을 부수고 아이들을 들어오게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거인이 우리를 쫓아냈다고 안 들어갔어요, 거인은 뒤늦은 후회를 했어요, 거인은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보기 싫어서 떠나버렸어요, 구름 계단을 올라가서 하느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아이들도 후회했어요, 그래서 비둘기의 등에 올라타서 거인에게 갔어요,

거인은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거인은 하느님의 나라에 더 있고 싶었어요, 거인이 말했어요,

“7년 후에 다시 갈게”

아이들은 거인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땅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도중에 아이 1명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걸 본 거인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아이는 구했지만 거인은 바다에 빠져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무척 슬퍼했어요,

하느님은 크게 감동해서 거인의 정원에 봄이 오게 해줬어요, 이제 거인은 없지만 거인의 정원은 아이들의 아름다운 놀이터가 되었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

안호상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많은 사람이 유년 시절 접한 한 권의 책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한다. 책은 우리가 가 보지 못한 곳을 상상하게 해 주고, 아직 해 보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주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어릴 적 기억을 돌아해보면 사실 책과 아주 친밀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다녔던 시골의 초등학교에는 연필과 지우개조차 준비하기 어려운 친구가 태반이었고, 학교에서 나눠 주는 교과서 역시 수업시간에 챙겨 오기는커녕 낱장으로 뜯어서 딱지치기를 하는 데 사용하곤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시골의 국민학교에도 학급 문고는 있었다. 비치된 책이라곤 열 권 남짓이 전부였고, 이용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지만 말이다. 방학을 앞둔 나는 학급 문고에 비치된 책을 모두 대출해 왔고, 그걸 읽으며 긴 긴 방학을 보냈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흘러 서울로 상경해 대학생이 된 나는 그 시절을 종종 떠올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방학에 농촌 봉사활동을 위해 고향에 들며 기회가 생겼고, 불현듯 학급 문고가 생각났다. 이번 기회에 작은 학교의 학급 문고를 채워 주기로 결심하고, 봉사활동에 동참하는 후배들을 불러 모아 각자의 책꽂이에 잠자고 있는 동화책, 소설책 등 100여 권을 모았다. 라면 박스에 차곡차곡 쌓고 노끈으로 질끈 묶은 책 무더기를 들고 고향 가는 길에 오르는 마음은 마치 금의환향하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오랜만에 찾아간 학교는 어느새 문고를 담당하는 선생님도 있고 제법 번듯한 도서관도 갖추고 있었다. 가져간 책들로 책장이 채워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사실 나는 전학 오기 전 빌렸던 학급 문고를 반납하지 못하고 떠나와서 늘 그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터였다.

어쩌면 남보다 늦게 책을 읽기 시작한 내가 처음으로 손에 든 책은 「장발장」이었다. 땡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죄수 장 발장의 불우한 인생을 다룬,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 책이다. 숨 쉴 틈 없이 빠르게 전개되는 사건의 속도와 그것이 주는 스릴감 덕분에 밤새워 읽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주인공을 따라 때론 함께 분노하고, 때론 슬픔의 감정에 공감하며 책을 읽는 즐거움에 푹 빠졌다. 요즘엔 청소년을 위한 축약본도 주인공 이름을 딴 「장발장」이 아닌 원제 「레 미제라블」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서의 수준도 그만큼 높아졌겠구나 하고 새삼 추측해 본다.

책은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과 같다. 어린 시절의 나는 「장발장」을 읽으며 아직 한 번도 열어 보지 못했던, 사회를 향한 시선을 비로소 개방하게 됐다. 사회적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레 미제라블)’로 대변되는 하층민·노동자, 매춘부, 거지들의 절망적인 현실과 온정을 베푸는 종교의 모습, 평생을 쫓기는 주인공 뒤로 암막처럼 드리워진 부정부패,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발단이 된 민중 봉기까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30여 년간의 집필 활동 끝에 세상에 내놓은 이 책에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성인이 된 나는 어릴 적 읽었던 「장발장」을 뮤지컬 「레 미제라블」로 다시 만났다. 그 감회는 무척 새로웠다. 뮤지컬은 책으로 읽을 때와는 또 다른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책 속의 결말은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입고 더욱 웅장해져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처음 이 책을 읽었던 어린 시절과 다르게 같은 이야기를 더 넓은 시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게 된 ‘나’를 발견한 것이다. 책에 담긴 중요한 텍스트를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것은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읽’의 범위를 더욱 넓게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물꼬가 된다.

책의 경계는 무한하다. 사실의 기록을 담기도 하고, 논리적 진술을 나열하기도 하며, 미지의 이야기를 보여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과거를 유추하고, 현재를 명확하게 이해하며, 미래 또한 상상할 수 있다. 종이에 또렷하게 인쇄된 텍스트에서 생각의 나래를 펼치는 재미와, 그 행간과 여백에 숨겨진 것들이 무엇일지 상상해 보는 책 읽기의 매력은 또 어떤가. 책 속 텍스트를 완전하게 내 것으로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읽는 과정에서 엉뚱한 상상을 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러다 ‘오독(誤讀)’에서 오는 새로운 발견과 마주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우리는

책 속에서 지식을 찾는다. 종종 해답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책의 역할은 사유를 자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책 읽기의 과정에서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고, 이런 집중과 몰입의 시간은 인간의 사유를 자극해 상상력을 만들어 낸다.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

| 도서관 행사 마당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일시 2017. 5. 31. (수) ~ 9. 28. (목)
장소 평생교육실 및 경주 · 영주 · 통영 일대
참여 지역 주민 화차별 30명

우리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7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올해 3차 주제에 따라 총 10회에 걸쳐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차는 '선비들의 장소애와 삶터 문화'를 주제로, 영양 및 국내 집과 마을에 깃든 인문 정신을 풍수학적 관점으로 알아보는 강연 및 경주 일대 탐방을 5월 31일부터 운영하였다. 또한 2차는 '선비정신 살아있는 현판과 음식 이야기'를 주제로 저자 강연 및 영주 탐방을, 9월에는 3차 박경리 문학 강연 및 박경리 기념관 탐방을 진행하여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여름독서교실

일시 2017. 8. 1. (화) ~ 8. 4. (금)
장소 평생교육실
참여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26명

'머릿속 생각! 글로 표현하기'를 주제로 여름방학 중 4일간 운영하였다. 관내 초등 3~4학년 26명을 대상으로 「(송언 선생님의) 신나는 글쓰기 초등학교」 도서를 선정하여 상황에 맞는 글쓰기 방법을 배우고 생각을 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왔다. 도서관 이용교육, 소개 글쓰기, 동시 쓰기, 이야기 만들기, 낱말퀴즈, 캘리그래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9월 독서의 달

일시 2017. 9. 16. (토) ~ 9. 30. (토)
장소 도서관 및 검마산자연휴양림
참여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

2017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가을 숲 독서여행, 원화전시, 독서명언 책갈피 증정, 도서관에서 책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 북커버 만들기, 다독자 표창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도서관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제5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일시 2017. 10. 13. (금) ~ 10. 15. (일)
장소 청도군 실내테니스장
참여 경상북도민 누구나

제5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가 "배움의 물결, 희망의 파도, 경북 평생학습"을 주제로 청도군에서 개최되어 관람객 32만 명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도내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도서관, 대학 등 100여 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가 참가하여 다양한 체험과 전시물을 선보였다. 우리 도서관은 '폴리머클레이 액세서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도서관 행사 마당

늘봄어린이독서회

일시 2017. 3. 25. ~ 12. 23. 둘째 · 넷째 토요일 11:00 ~ 13:00
장소 평생교육실
참여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15명



관내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월2회 '늘봄어린이독서회'를 운영한다. 독서토론 및 북아트, 직업 가치 게임 등 재미있는 독후 활동을 통해 사고력과 발표력을 증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어린이 양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제53회 도서관주간

일시 2017. 4. 12. (수) ~ 4. 18. (화)
장소 도서관 전체
참여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 주민

'다독다독(多讀多讀), 내 꿈을 응원해주는 도서관'을 주제로 7일간 개최되었다. 내 아이의 첫 도서관, 물렛 도서관 퀴즈, 이야기가 있는 원화 전시 및 퀴즈,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엽서 컬러링, 성인 소이캔들 체험, 어린이 디폼블럭 체험, 인형극 공연, 행복한 책 나눔 등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졌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일시 2017. 4월 ~ 12월
장소 일월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참여 일월초등학교 및 청기분교 전교생

우리 도서관은 일월초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1학년생을 대상으로 동화구연 특강 및 소리영어 강좌를 12월까지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전교생 대상 독서퀴즈를 운영, 시상하고 샌드아트 및 마술 공연을 개최하였다.



특성화사업 '다문화 공강: 같이의 가치를 배우는 도서관'

일시 2017. 4월 ~ 12월
장소 도서관 전체
참여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및 자녀, 지역 주민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2017년 공공도서관 특성화사업으로 다문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내 다문화가정 자녀 유치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주1회 연중 '도서관에서 책과 한 걸음'을, 이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10~11월에 '다재다능 엄마 다문화교실' 손뜨개 강좌를 운영하였다. 또한, 11월 25일에는 '마카多 함께 도서관 DAY!'를 열어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평생교육 마당

● 평생교육강좌 운영

지역주민들의 자아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강좌를 연중 운영 중이다.

| 상반기 평생교육강좌 |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운영일시
생활민화	일반인	3. 14. ~ 6. 27. (총 15회)	매주 화 10:00 ~ 12:00
감성 손글씨 캘리그래피 (초급)	일반인	3. 16. ~ 6. 8. (총 13회)	매주 목 10:00 ~ 12:00
넵킨 아트	일반인	3. 17. ~ 6. 16. (총 13회)	매주 금 10:00 ~ 12:00
드론 우주 항공 교실	초등 3~6학년	3. 18. ~ 6. 3. (총 12회)	매주 토 09:30 ~ 11:30
만들면서 배우는 세계 문화	초등 1~6학년	3. 18. ~ 6. 3. (총 12회)	매주 토 13:00 ~ 15:00

| 여름방학특강 |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운영일시
똑딱똑딱 공예교실	초등 1~6학년	8. 8. ~ 8. 18. (7회)	화~금요일 10:00~12:00
동화구연 & 책놀이	초등 1~2학년	8. 1. ~ 8. 17. (8회)	화~목요일 13:30~15:30
그림책과 함께 쫄쫄쫄	6~7세 유아	8. 5. ~ 8. 26. (4회)	토요일 10:00~12:00

| 하반기 평생교육강좌 |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운영일시
역사 에세이 : 조선의 왕 이야기	학부모 및 일반인	9. 27. ~ 12. 20. (총 12회)	매주 수 10:00~12:00
내 아이를 위한 손뜨개 인형	일반인	9. 21. ~ 12. 14. (총 12회)	매주 목 10:00~12:00
감성 손글씨, 캘리그래피(중급)	일반인	9. 22. ~ 12. 15. (총 12회)	매주 금 10:00~12:00
3D 펜 창의융합 교실	초등 1~3학년	10. 14. ~ 12. 16. (총 10회)	매주 토 09:00~10:00
	초등 4~6학년	10. 14. ~ 12. 16. (총 10회)	매주 토 10:00~11:00
[찾아가는 문화강좌] Aha! 소리영어 II	일월초 및 청기분교 1학년	9. 6. ~ 12. 20. (총 11회)	매주 수 10:00~12:00
[찾아가는 문화강좌] 손재미 실버교실	영양사랑노인전문 요양원어르신	9. 13. ~ 11. 22. (총 10회)	매주 수 14:00~16:00

사서 추천도서

무심하게 산다

가쿠타 미쓰요 지음 | 북라이프 | 2017



날카롭고 섬세한 심리묘사로 일본에서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가쿠타 미쓰요가 노년의 신체적·정신적 두려움에 관해서 쓴 에세이로 인간미 넘치는 유쾌한 일상의 깨달음을 전달한다. 『무심하게 산다』는 가쿠타 미쓰요가 ‘꿈’의 변화를 통해 나이 들에 관한 두려움이 기대로 바뀌는 흥미로운 과정을 담아낸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40세가 지나야 제대로 알게 된 두부 맛에 대한 이야기, 기미와 주름이 생긴 손등을 가만히 쳐다본 날, 나이와 성숙함은 별개의 문제라는 깨달음, 점점 굳어져 가는 내면에 대한 고찰 등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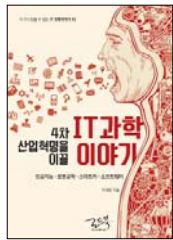
손완형 지음 | 창비 | 2017



영화와도 같은 강렬한 사건과 매혹적인 문제로 시선을 사로잡는 한국형 영 어덜트 소설 『아몬드』.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진 공감 불능인 이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이 작품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특별한 성장을 그리고 있다. 감정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열여섯 살 소년 선윤재와 어두운 상처를 간직한 굳이 그와 반대로 맑은 감성을 지닌 도리와 윤재를 돕고 싶어 하는 심 박사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럼에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전한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IT과학이야기

이재영 지음 | 로드북 | 2017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스마트 카,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리를 이해하면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알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목시키기 좋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소프트웨어의 기술에서 시작된다. 코딩교육은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으로 코딩교육이 필수화되었다. 이 책은 핵심적인 산업분야만 담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읽기 적합하게 설명되어 있어 4차 산업혁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

플란텔 팀 글, 루시 구테예레스 그림, 김정하 옮김 | 풀빛 | 2017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린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내일을 위한 책' 시리즈 4권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 우리가 거쳐 왔고,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뜨거운 논의를 만나보세요. 아이들에게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며 나아가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세련된 그림으로 표현해 흥미를 갖게 합니다. (2016년 볼로냐 라가치 상노픽션 대상 수상)

Smart한 도서관

1. 통합회원 및 경상북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 모바일 앱 소개

- 통합회원 전환 시 하나의 회원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통합도서관 28개 전체 도서관 이용 가능
- ※ 전체 도서관 총 대출 가능 권수: 20권
- 모바일 회원증 이용 가능
- 구글 'Play 스토어'에서 '경상북도교육청통합공공도서관' 앱 검색 후 다운로드

2. 자료 예약 및 희망자료 신청

- 자료예약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종인 자료에 한해 예약 신청
- 희망자료신청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1인 월 5권 이내)

3. 도서관 원문정보 제공 서비스

디지털자료실에서는 이용자 원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전자도서관 두 곳이 협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원문을 유료 또는 무료로 열람/출력 가능합니다.

▶ 원문정보 이용방법

: 도서관 원문서비스 지정 PC에서 사이트 접속 → 원문 열람 → 원문 출력

